

오락문화비 지출도 빈부差 심해

전남 48만원 전국 최하위

지역별 1인당 年사용액

서울 74만원 1위

광주 62만원 6위

국민 1인당 오락문화비 지출액이 경기 침체로 2년 연속 줄었으며, 전남의 지출액은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통계청의 오락문화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2004년 지역별 1인당 오락문화비 분석'에 따르면 2004년 1인당 연간 오락문화비 지출액은 62만2천원으로 2003년(64만7천935원)보다 4.0% 줄었다.

■ 지역별 1인당 오락문화비 지출액

지역	2002년	2003년	2004년
서울	807,285	789,023	746,336
광주	652,432	628,600	628,965
전남	505,695	492,209	482,701

만6천원으로 16개 시·도중 가장 컸고, 인천(65만7천원), 부산(65만4천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62만6천원으로 6위를 기록해 전년 보다 한단계 상승했지만 전남은 48만3천원으로 전년 15위에서 다시 끌어내려 앉았다.

또한 각계의 최종소비지출액에서 오락문화비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2003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8.3%로 가장 높고 인천(8.2%), 광주(8.0%)가 뒤를 이었다. 경북은 6.6%로 가장 낮았다.

이는 2003년부터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면서 소비 지출액이 늘어났으나 사교유비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음식·숙박비 지출이 선택적 항목인 오락문화비 지출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풀이했다.

지역별 1인당 지출액은 서울이 74

만원으로 올해 일반회계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7천829억900만원으로 작년의 7천431억7천900만원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이 절반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국방부와 경찰청도 1천억원이 넘었다.

이들 3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7천36억1천400만원으로 전체의 89.9%였다.

/연합뉴스

부처 특수활동비
올해 7,800억원

정부 부처가 올해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특수 활동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와 기획예산처에 따

을때 만평

- 김종우



한국의 '베니스'를 만들참인가??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전남도에서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전남개발공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6년 7월 18일

전남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대상 : 「전남개발공사」사장 1명

2. 일 기 : 3년

3.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투철한 CEO(최고경영자) 정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유한 자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의지를 가진 자

4. 응모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6. 8. 2(수)~2006. 8. 7(월), 공휴일 제외
- 교부 및 접수처 : 전남도 예산담당관실(전남도청 12층)
- 접 수 방 법 : 접수 기관내에 응모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① 응모원서(소정양식) 1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전라남도 수입증지 첨부)
- ② 이력서(민영직장 사진부착) 1부
- ③ 학력증명서(대학이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⑥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작성) 및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경영목표 및 방향 등(A4 용지 4~5매 정도)
- ⑦ 기타(자녀증명서 1부, 외국어능력검증필증원본 1부, 국외훈련이수필증원본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논문요약서 A4용지 2매 등 기타 관련 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 등)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

6. 응모자 심사

- ① 1 차 : 서류전형
- ② 2 차 : 면접전형(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실시)
- ③ 응모대상자가 사장후보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장후보대상자로 추천을 아니할 수 있음.

7.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경력·자격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본도 소정양식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설과별홈페이지」「예산담당관실」「공지사항」 본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 ④ 문의처 :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061)286-2540, 2542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제58주년 제헌절 경축식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5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5부요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 판·검사 징계강화”

우리당 관권법 개정 추진

열린우리당은 17일 비리혐의가 확인된 판사·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병호 제1정책위원장은 “비리 판·검사의 경우 징계를 받기도 전에 사표를 내면 정부가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검사·법관 징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 조비리 균절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쌀 ‘저가판매’ 규제해 달라”

쌀값 하락 부채질 … 농가 울상

전남도, 농림부에 건의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쌀 미끼상품’ 사용행위가 극복되지 않아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속적인 균질축구에도 아랑곳없이 농산물 특가판매 행사에서 정상보다 쌀을 훨씬 싸게 파는 미끼상품 행위를 지속,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유통업체는 농산물 특판행사를 벌이며 쌀을 시중 가보다 훨씬 싸게 파는 행위로 판매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쌀 20kg 들이 1포대를 평균 시중가격 4만원 대보다 17.5% 저렴한 3만 3천원 대에 판매하는 등 저가 특판행사를 시시로 진행하고

있다. 또 이를 알리는 전단지를 대량으로 뿐려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쌀농민들은 DDA, FTA 추진, 쌀의 무수입물량 증가, 주곡수매체 폐지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데다 산지 쌀값도 2004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같은 미끼상품 행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막강한 구매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적으로 쌀을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면서 쌀 생산농가는 물론 재래시장 소상인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에 쌀 미끼상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해 달라고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했다.

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에 쌀 미끼상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 미끼광고 규제 사례를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호주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해 매매거래관련 법과 소비자보호법(Trade Practices Act)과 State Consumer Protection Law)을 통해 부당 상행위와 미끼광고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판매경로가 다양해 미끼상품으로 저가 판매할 경우 경쟁적으로 격려하려고 격려하게 된다. 특히 RPC(미국종합처리장)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생산원가 이하에 출혈납품을 하고 있다’고 이의 근절을 촉구했다.

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에 쌀 미끼상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 미끼광고 규제 사례를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호주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해 매매거래관련 법과 소비자보호법(Trade Practices Act)과 State Consumer Protection Law)을 통해 부당 상행위와 미끼광고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국민주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해 668명의 고객에게 7천249주를 반환했다. 대상은 지난 88년과 89년에 포스코(포스코 주와 한전주는 5천364주와 4만5천246주에 달하고 있으며, 고객 수로는 약 3천800명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4월 21일부터 지난 4월 중순 이후 15개월간

50대이상 취업자 650만명

30, 40대 첫 추월

“노동시장 고령화”

5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30대와 40대 취업자를 앞질러 취업자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주력이 30대에서 40대로 이동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50대 이상이 주력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4분기 취업자 2천340만9천명 가운데 50~59세 388만7천명, 60세 이상 260만7천명을 합친 50대 이상 취업자는 전체의 27.7%인 649만4천명에 달해 30대(61만9천명, 26.5%)와 40대(645만명, 27.6%)를 앞질렀다.

50대 이상 취업자 수가 30대는 물론 그동안 노동시장의 주력이었던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처음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잊혀졌던 국민株 ‘대박’

우리·국민銀 고객 1,600명

휴면주 찾아가 12억 벌어

보관하고 있는 휴면 국민주를 본점 수신서비스센터로 집중시켜 3월부터 유선 연락과 3차례에 걸친 DM 발송을 통해 국민주 찾아주기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5개월간 1천660명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휴면 국민주를 찾았다. 지난 주말 23만3천원을 기록하여 이번에 포털주를 찾아간 고객들은 무려 15배 이상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한전의 경우는 지난 주말 종가 3만4천400원에 대박을 29만7천원에 밭쳤다. 이에 반해 30대 취업자 비중은 2003년 27.9%에서 2004년 27.4%, 2005년 26.8%, 올해 상반기 26.6% 등으로 높아지며 30대와 40대에 균형했다.

이에 반해 30대 취업자 비중은 2003년 27.9%에서 2004년 27.4%, 2005년 26.8%, 올해 상반기 26.6% 등으로 높아지며 30대와 40대에 균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포스코 주와 한전주는 5천364주와 4만5천246주에 달하고 있으며, 고객 수로는 약 3천800명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492명이 포털주 3천482주를, 1천934명이 한전주 2만2천207주를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휴면 국민주를 찾으려는 고객은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2130-5485)나 국민은행 증권대행팀(02-2073-8119) 등에 문의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올초 각 영업점에

분양대행전문회사

분양 대행 전문-분양이 안되십니까?

*아파트/상가/빌딩/전원주택/기타부동산관리

부동산 개발 관리-토지개발을 준비하십니까?